

# 전당 '미디어월'에서 쏘아올린 5·18



## 과거와 현재를 잇다

ACC는 5·18 40주년을 맞아 6월 말까지 미디어월에서 5·18의 과거와 미래가 담긴 20여 편의 영상을 상영한다. 작품은 정자영 작가의 2019 미디어월 퍼포먼스 '빛(LIGHT)'.

### ACC, 6월말까지 다큐·웹툰·미디어아트 등 20여편 상영 정자영 작가 미디어월 퍼포먼스 '빛' 아카이브 영상 눈길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미디어월은 옛 전남도청(민주평화교류원)과 아시아문화원 사이에 있는 '전당의 랜드마크'다. 아울러 국내 최초 멀티미디어 플랫폼으로, 이곳에 내장된 대형 스크린을 통해 다양한 영상이 송출된다. 2017년 광주가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 선정되면서 문화전당이 미디어아트 활성화를 위해 설치했다. 그동안 ACC는 미디어월을 통해 문화예술 콘텐츠와 시민참여 공모전 안내 등 다양한 행사를 펼쳐왔다. 광주의 소중한 문화 자산인 미디어 월이 이번에는 80년 민주화운동 당시와 현재를 잇는 '의미 있는 창'으로 변신한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5·18의 과거와 미래가 담긴 영상을 상영하는 것.

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은 지난 2일부터 오는 6월 말까지 미디어월에서 5·18 영상을 상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만나게 되는 영상 중에는 다큐멘터리, 웹툰, 미디어 아트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2019 민주·인권·평화 웹툰 공모전' 대상·금상 수상작 등 전체 수상작 20편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비롯해 지난해 5·18 민주화 정신 계승을 위해 정자영 작가가 연출한 미디어월 퍼포먼스 '빛(LIGHT)' 아카이브 영상을 선보인다. 특히 눈에 띄는 작품은 정자영 작가의 '빛(LIGHT)'이다. 그동안 세월호와 형제복지원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던 정 작가는 이번 '빛(LIGHT)'을 매개로 5·18의 상흔을 위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5·18기념재단이 지난 2017년 제작한 '광장-민주주의를 꿈꾸다', '아가 밥은 목였냐', '진실, 알리려는 자 외면하는 자', '기억하겠습니다 5·18-5·18 35주년 기념 영상' 등은 5월의 상흔과 의미를 되짚어보는 작품이다. '광장 민주주의를 꿈꾸다'는 고대 그리스 아고라에서부터 80년 광주의 도청 광장까지의 광장 민주주의의 역사적, 세계사적 연관을 들여다본다. '아가 밥은 목였냐'는 당시 광주 공동체 정신을 엿볼 수 있던 작품으로, 시민군에게 주먹밥을 제공하며 연대했던 오월 어머니들의 모습을 담았다. 아울러 다큐멘터리 '기억하겠습니다 5·18-5·18 35주년 기념 영상'은 5·18의 의미와 현대적 계승을 위해 무엇이 논의되고 모색되어야 하는지를 조명한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발굴 영상 아카이브도 눈길을 끈다. '5월의 재발견-아! 국군통합병원'은 지난 2017년 발견된 80년 광주를 다룬 75분 분량의 필름을 재편집했다. 당시 민간인 수백 명을 치료했던 국군통합병원을 촬영한 영상과 빈

건물로 남아 있는 병원의 현재 모습이 담겨 있다. 또한 KBS 광주방송총국이 제작한 5·18 40주년 연중 캠페인 상무관 편 등도 상영된다. 영상 시간은 오전 8시-10시, 낮 12시-오후 2시, 오후 5시-7시. 모두 두 시간 단위로 세차례 상영되며 하루 평균 6시간, 세 달여에 걸쳐 약 500시간 이상 노출될 예정이다. 이번 영상은 ACC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한편 ACC는 영상 상영과 함께 오는 5월부터 5·18민주화운동과 관련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의 ACC 핵심가치 '평화'를 주제로 하는 전시·공연·교육 프로그램으로 5·18민주화운동의 40년 기억을 되짚는 동시에 미래 40년을 조망한다. 이진식 전당장 직무대리는 "코로나19로 5·18 40주년 기념 행사들이 취소되고 있지만 ACC는 5·18 정신을 국내외 아시아로 확산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 '광주문학' 봄호

5·18 40주년 기념 시·수필 담아

"어느덧 40년의 세월이 흘렀다. 세월은 과거를 잊게 한다. 5월 그날의 쓰라린 아픔도 이제는 역사 속에 남아 있을 뿐이다. 더욱이 역사의 현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5월의 이가기를 잊어가고 있다. 그러나 짙레의 꽃말이 '양심의 가책'이듯, 짙레꽃이 피는 계절이면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김한호, '5월의 꽃밭' 중에서) 올해는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40주년이 되는 해다. 신근부의 쿠데타에 항거한 수많은 광주시민들은 폭도로 몰려 억울한 죽임을 당했다. 당시 공수부대는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했고 꽃잎처럼 스러진 이들이 망월 묘지로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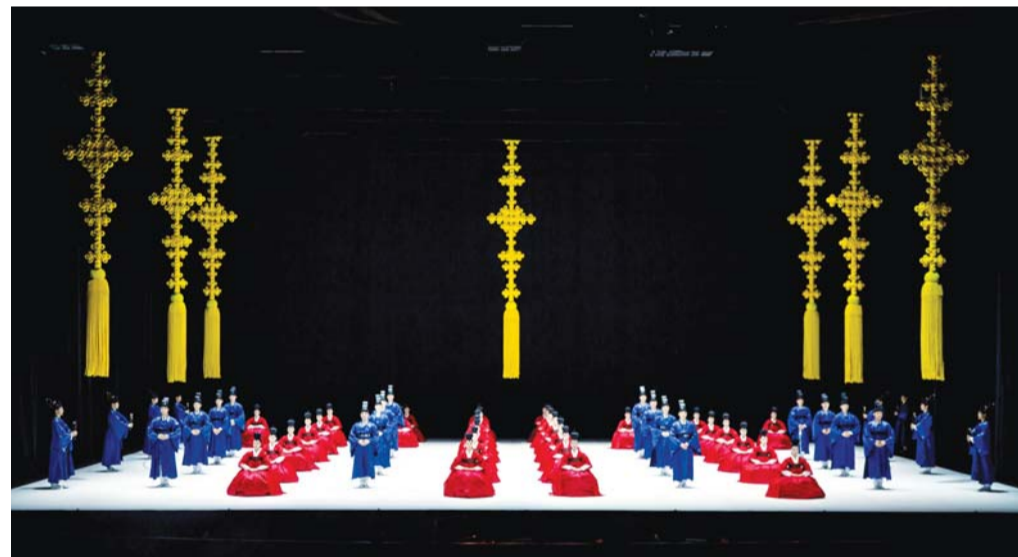


광주문인협회(회장 탁인석)가 발행하는 기관지 '광주문학' 봄호(통권 94)는 광주민중항쟁 40주년기념 5·18을 주제로 한 시와 수필을 선보였다. 강경호·김영석·김종·박래홍·서연정·이준배·전승·전원범 시인의 시와 김한호 수필가, 이광일 시인의 수필은 저마다의 관점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김한호 수필가는 '5월의 꽃밭'에서 "5월 그날이 오면, 산자락 가시덤불 속에서도 짙레꽃은 피어나고 한 맺힌 이의 가슴속에서도 짙레의 꽃넋은 되살아난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또 다른 특집에서는 '광주문학'에 수록된 작품을 대상으로 선정한 제32회 광주문학상과 제12회 올해의 작품상 수상자를 조명했다. 광주문학상 수상자인 김미라 시인의 '눈 보러' 외 1편은 동심의 에너지를 시적 묘사로 연계한 특징을 보여준다. 아울러 제12회 올해의 작품상 수상자 이준배 시인의 '겨울 은하(銀河)' 외 1편에서는 평론과 창작을 오가며 독특한 작품 세계를 펼치고 있는 시인의 문학적 역량을 가늠할 수 있다. 이밖에 '광주문인협회에 바란다'에는 김을현·백승현·이동호·박경자의 글과 이들이 추천하는 도서도 소개돼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가장 가까운 국립극장' 5월 8일까지 상영합니다

대표작6편, 유튜브·네이버TV에서  
국립극장은 공연 실황 전막 영상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가장 가까운 국립극장' 프로그램을 확대 상영한다. 다음달 8일까지 극장 3개 전속단체의 대표작 6편을 유튜브 채널과 네이버TV를 통해 공개한다. 지난달 25일 선보인 국립창극단 '파왕벌'을 시작으로, 국립무용단 '목향', 국립창극단 '심청가', 국립국악관현악단 '격계, 한국의 맛', 국립무용단 '향연', 국립국악관현악단 '양방언과 국립국악관현악단-인투더라이트'가 차례로 상영된다. '향연'은 궁중무용, 종교무용, 민속무용 등 장르별 레퍼토리를 사계절 안에 담아낸 작품이다.

봄을 의미하는 1막에서는 연희의 시작을 알리는 궁중무용을, 2막 여름에서는 기원의식을 바탕으로 한 종교무용을, 3막 가을에서는 다양한 민속무용을, 4막 겨울에서는 '신태평무'를 선보이며 태평성대를 바라는 염원과 다가올 봄의 희망을 표현한다. '양방언과 국립국악관현악단-인투더라이트' 1부에서는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로 활동중인 양방언이 작곡한 30여분짜리 다악장 구조의 국악관현악 교향곡 '아리랑 로드-디아스포라'를 공연한다. '아리랑 로드-디아스포라'는 정치적·종교적 이유로 삶의 터전을 떠나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 수밖에 없던 디아스포라를 주제로 한 곡으로 한편의 이야기처럼 서사구조가 뚜렷한 특색이 있다. 2부에서는 양방언의 대표곡을 다양한 편성과



국립무용단 '향연' 공연모습. 국악관현악 편곡으로 선보인다. 선공개된 '파왕벌'은 지난 2주간 4만6000여 회, '목향'은 6일간 2만7000여회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시 감상 앱 '시요일' 3주년 90% 할인

국내 첫 시 감상 애플리케이션 '시요일'이 창립 3주년을 기념해 1년 무제한 이용권을 90% 할인한 1만 원에 제공한다고 8일 앱을 운영 중인 도서출판 창비가 밝혔다. 창립 3주년 기념일인 오는 10일부터 31일까지 '시요일' 앱과 인터넷 홈페이지(www.siyoil.com)에서 판매한다. 시요일은 국내 최초·최대 시 감상 앱으로 1920년대부터 현재까지 4만3000여 편의 대표 시집을 수록했다. 최근 누적 이용자 40만명을 돌파했다. /연합뉴스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062 673 5858 (모발모발)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